

# 봄나들이... 연극보러 갑니다

‘봄날, 연극으로 떠나는 여행.’ 푸른연극마을은 ‘매화연정’을 22일 오후 7시30분, 23~24일 오후 3시~7시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 무대에 올린다.

지난 3월 열렸던 광주연극제 참가작으로 극단 대표 오성환씨가 극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다.

작품의 배경은 섬진강가 매화꽃 아름다운 동네. 막노동관에서 일하며 고단한 삶을 살아온 두식과 아노즈에 걸린 아들 대근이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는다. 의절하듯 지내온 고향 엄마에게 도움을 받으려 온 두식은 노모와 함께 재첩을 잡으며 사는 미자를 만난다.

박영진씨가 주인공 두식역을 맡았으며 이담규·정일행씨가 함께 출연한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5000원.

포커스 씨어터가 제작한 슬픈 사랑 이야기 ‘겨울비, 그해 마지막 겨울’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21일~24일(평일 오후 7시30분, 토·일요일 오후 5시) 공동예술극장.

공지영의 베스트셀러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원작으로 한 ‘겨울비’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지만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수정과 극약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청년 윤수의 아련한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주인공 수정과 윤수역으로는 정경아·박준우씨가 출연하며 정은희·조영철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극본과 연출은 김종진씨가 맡았다.

티켓가격 2만원, 1만5000원. 문의 062-515-8383.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은 극단 ‘예인방’ (대표 김진호)은 기념작으로 ‘무어별’을 무대에 올린다. 22일 오후 6시30분 나주문예회관.

‘무어별’은 조선조 중기 시인 겸 문신이자

날짜	연극	장소
22~24일	푸른연극마을 ‘매화연정’	동산아트홀
21~24일	포커스 씨어터 ‘겨울비’	공동예술극장
22일	예인방 ‘무어별’	나주문예회관

일제의 풍류객으로 이름을 떨친 백호 일제의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송수영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박규상·임은희·김영·이지혜·김진호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아시아에 흠어져 있는 고인돌 흑백필름에 담아

## 박하선 사진집 ‘오래된 침묵’ 출간... 100부 한정

일찌감치 고인돌의 중요성을 인식한 오지(奧地) 전문 사진작가인 박하선(57)씨가 아시아지역의 고인돌을 주제로 한 사진집 ‘오래된 침묵’(Ancient Silence)을 출간했다.

20여 년 전부터 한반도 등 아시아지역에 흠어져 있는 고인돌을 찾아 흑백필름에 기록해 왔던 박씨는 수만 컷에 이르는 필름 가운데 기록성과 예술성을 갖춘 120컷을 골랐고, 한 장 한 장을 직접 프린트해 책을 엮었다.

작품집은 ‘만주지역에서’ ‘한반도에서’ ‘중국 제지양성소와 일본 큐우슈우 지역에서’ 3개 부분으로 구성했으며, 후반부에는 ‘작업노트’가 실렸다.

이번 작품집은 여는 사진집과는 형식부터

가 판이하다. 대형 인쇄기로 판에 박힌 사진을 인화하기보다는 작가가 직접 편집, 디자인, 스캐닝,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프린팅, 제본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처리해 예술성을 더했다.

또한 프린트는 전 쪽 모두 수입산 고급 아트지에 한쪽에만 인쇄해 소장 가치를 높였고, 사진집 앞쪽에 발행일과 에디션 넘버, 작가의 서명과 낙관을 수록했다.

서문과 작업노트를 포함해 230쪽에 이르는 사진집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한 권을 제작하는 데 무려 2~3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박씨는 대량 인쇄하지 않고 100 부만 한정 제작할 계획이다.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고인돌

오리지널 작품이고 작가가 직접 제작하는 점을 고려해 책값은 120만원으로 정했다. 박씨는 우선 이달 중 15권을 제작해 다음달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며, 조만간 대형 작품 전시회도 연다는 계획이다. 문의 010-7608-146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교보문고·알라딘·YES24 등 인터넷서점

## 23일은 ‘세계 책의 날’ 빅 이벤트

23일 ‘세계 책의 날’을 앞두고 교보문고 등 인터넷서점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세계 책의 날’은 과거 스페인에서 책 읽는 사람들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던 ‘세인트 조지’ 축제와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1616년 4월 23일 같은 날 사망한 점에 착안해 정해진 날로 유네스코가 1995년 총회에서 지정했다.

교보문고는 홈페이지에서 24일까지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의 저서와 명인 가운데 감동적인 문구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60명에게 ‘맞춤 책도장’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책을 선물한 고객들에게 추천을 통해 분야별 추천 도서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YES24는 지난 19일부터 일주일간 대상으로 2만원 이상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책갈피형 북라이트를 증정하는 행사를 벌인다.

또 5월 15일까지 책 구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11 SBS불쇼이 아이소쇼 관람 초대권(10명)을 증정하며 내가 평소 읽고 싶었던 책에 대한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YES24포토북 할인쿠폰을 선물한다.

인터넷서점에서도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 부모님, 자녀를 비롯해 회사 동료와 고객들에게 선물하면 좋은 책을 추천, 이 도서를 구매 고객 중 추천을 통해 사은품도 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아시아 여성 감독들 다양한 시선 현대미술·비엔날레 역사 바꾼다

광주비엔날레가 서구·남성 중심 현대 미술에 돌을 던졌다. 현대미술의 변방으로 치부되던 아시아 6개국 젊은 여성 큐레이터들의 손에 제9회광주비엔날레(2012년 9월7일~11월11일)를 맡기기로 했다. 아시아 여성들이 펼쳐질 될 전시는 가장장적인 질서가 여전히 유지되는 현대미술과 비엔날레의 역사를 바꿀 것을 ‘스캔들’이다. 그녀들의 손에 쥐어진 돌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서구·남성 중심 현대 미술에 돌을 던졌다. 현대미술의 변방으로 치부되던 아시아 6개국 젊은 여성 큐레이터들의 손에 제9회광주비엔날레(2012년 9월7일~11월11일)를 맡기기로 했다. 아시아 여성들이 펼쳐질 될 전시는 가장장적인 질서가 여전히 유지되는 현대미술과 비엔날레의 역사를 바꿀 것을 ‘스캔들’이다. 그녀들의 손에 쥐어진 돌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국적 여성 감독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감독 선정의 가장 큰 이유다. 재단은 6명의 감독들이 주제를 정하고, 작가를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물로 남길 계획이다. 각기 다른 국가에서 자란 여성들의 생각이 토론을 통해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미학적인 의미이며, 세계 미술계에 던지는 화두가 될 것이다.

또 이들 감독들이 리서치한 방대한 수의 작가군을 압축해 가면서 동시대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현대 미술의 흐름을 되짚는 계기도 마련된다.

반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감독의 수가 늘어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획비와 여비 등이 크게 늘어나고, 다수의 감독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감독을 돕는 보조 큐레이터를 다수 선임했는데, 6명의 감독이 이 역할까지 한다면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각기 다른 감독들의 생각은 토론과 세미나 등을 통해 조율할 것이며, 이런 감독간 충돌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미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시아 여성의 힘=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제9회 대회의 공동감독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선정(46) 교수 ▲일본 동경 모리미술관 마미 카타오카(46) 수석큐레이터 ▲중국 독립큐레이터 캐롤 잉화 루(34) ▲인도 독립큐레이터 겸 미술비평가 낸시 아다자나(40) ▲아랍현대미술관 관장 와산 알-쿠다이리(31·이라크) 등 5명을 우선 선정·발표했다. 나머지 한 명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고, 4월말 선임할 계획이다.

재단은 지난해 감독을 뽑기 위해 정책 연구실을 중심으로 한 TF팀을 꾸려 16차례 회의를 통해 후보 66명 중 7명, 2인 1개 팀을 2차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이후 세계비엔날레 재단 디렉터 5명으로 구성된 국제자문회의의 조언을 통해 2명의 개인 후보와 이번에 선정된 5명의 감독이 포함된 7개의 팀이 최종 후보군으로 뽑혔다.

‘아시아 여성들’이라는 개념은 이때 등장했다. 소수 감독들의 명성에 기대 전시를 진행하는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감독들의 시선을 담아내는 차별화된 전시를 보여주자는 것이다. 최종 감독 후보를 정하는 재단 이사회 예술사위원회도 아시아 여성들로 꾸려진 공동감독체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국적 여성 감독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감독 선정의 가장 큰 이유다. 재단은 6명의 감독들이 주제를 정하고, 작가를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물로 남길 계획이다. 각기 다른 국가에서 자란 여성들의 생각이 토론을 통해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미학적인 의미이며, 세계 미술계에 던지는 화두가 될 것이다.

## 내년 광주비엔날레 이끌 아시아 6개국 여성 큐레이터 감독간 논의 과정 기록물로... 틀을 깬 이색 전시 기대



제9회광주비엔날레는 이례적으로 아시아 지역 여성 6명이 공동감독을 맡았다. 사진 왼쪽부터 캐롤 잉화루·마미 카타오카·와산 알-쿠다이리·낸시 아다자나·김선정 감독.

**특허방수**

1.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옥상**

2중단열 방수,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전천후 시공성

**트라이슈머® 단열시트방수**

엔지니어링에 이은 20년 이상의 신뢰

본사 전속모델 **밸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대리점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필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